

189. 클리닝 의류 사고사례

(56) 접착 수지가 용출되는 본딩가공

□ 접착 수지가 용출되는 본딩가공

해설)

- 버버리 코트를 석유계 용제로 드라이클리닝하였는데, 소매 부분에 반점모양의 얼룩이 발생되었음. 재차 퍼클로로에틸렌으로 드라이클리닝을 다시 해보았는데, 옷깃 주위, 호주머니 아래 등에 얼룩이 더욱 확대되었음.
- 이 제품의 조성은 폴리에스터 68 %, 폴리우레탄 32 %인데, 이 조성 중 폴리우레탄 수지는 천의 표면에는 없고, 안쪽의 코팅 또는 본딩재로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음.
- 오른쪽 소매, 옷깃 주위에 얼룩모양의 오염형태를 관찰해 보면, 얼룩모양 부분의 섬유는 점착성이 있는 수지가 침투되어 있음을 볼 수 있음.



- 이러한 현상은 폴리우레탄 수지가 습한 환경에서 점차로 경시변화에 의한 가수 분해가 일어나고 분해된 수지가 드라이클리닝 용제를 흡수하여 박리나 점착성을 일으켜 걸감에 배어나와 농색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.
- 이러한 소재의 경우 제품의 수명은 일반적으로 약 3년 정도로 되어 있으나, 제품의 수명을 고려하지 않고 클레임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.

♠ 자료출처 : 송종욱 역, 세탁에서 나타나는 문제의류 사고사례 도감, 한국세탁업중앙회, 2011

www.textilecare.kr